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양인 양성

국어국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ttp://gukmun.khu.ac.kr/>





시대에 응전하는 인문학의 길을 열다

국어국문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탐구해 왔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내실을 갖춘 국어학, 우리 민족의 지난 삶을 배우는 구비문학과 고전문학, 문예창작 전통 위에 명성을 쌓아온 현대문학 전공은 이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인문적 가치에 뿌리를 둔 문화콘텐츠 전공까지 갖추면서 시대에 응전하는 인문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국어학 전공은 한국어의 기본원리와 체계를 연구하면서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탐구합니다. 고전문학 전공은 한글, 한문으로 기록된 당대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인 특유의 사상과 감정을 공부합니다. 현대문학 전공은 빼어난 문예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동시대 한국문학의 가치와 깊이를 성찰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 전공은 축적된 인문학적 자산을 활용해 사회의 요구와 문화산업 현장의 요청에 부응하는 비평과 기획에 도전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한국어학, 문화콘텐츠학을 뼈대로 하는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프로그램으로는 세계 각국의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을 방문하여 현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현장을 실습합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시·소설 창작학회, 언론 관련 학회, 우리말 연구학회, 고전문학학회, 현대소설·시비평학회, 출판학회를 만들어서 문인, 언론인, 연구자, 편집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사를 빛낸 문학인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이어지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소설가 황순원, 조세희, 손보미, 시인 조병화, 정호승 등 한국문학사를 빛낸 작가와 시인으로 유명한 학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문학에 대한 전통을 지켜갈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한국어교육, 교과과정 신설을 통해서 영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구독플랫폼 등 문화콘텐츠

츠, 데이터와 웹 아카이브,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해 열어가는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분야의 과목을 과목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어문학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현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학자, 교육자, 기자, PD, 시인, 소설가, 작가, 문필가, 카피라이터 등으로 활동하는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학계, 교육 현장, 언론 및 방송계, 문단, 인터넷 포털 등 산업계에서 우뚝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양인, 응용하면서 도전하는 지성인들이 미래를 도모하는 곳,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꿈에 닿아 가시길 기원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국어국문학과는 우리말의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말에 대한 이해, 문학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우리말과 문학에 대한 애정과 역량, 독서 및 토론 활동 등을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여기에 어문학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가진 사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전 어학과 고전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문에 대한 소양이나 지식도 필요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과 학습을 바탕으로 한 연구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어국문학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